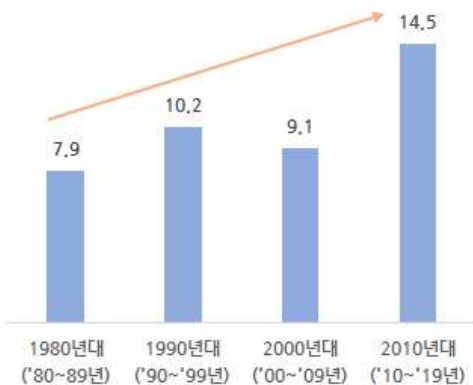


# I

## 검토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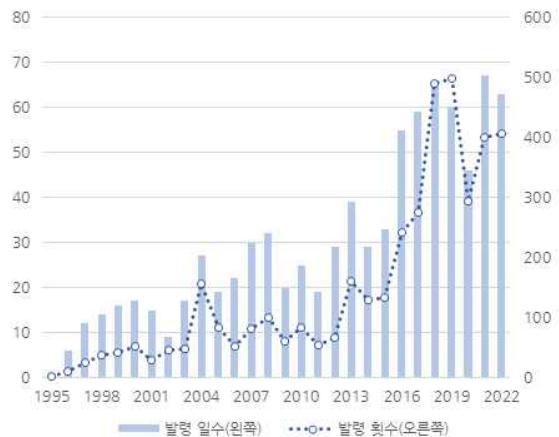
- 최근 기온 및 폭염일수가 증가하고,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등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
  -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온과 폭염 일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, 이러한 추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
    - 1980년대 연평균 폭염 일수는 7.9일이었으나, 연대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대는 14.5일을 기록함(그림 I-1) 참조)
    - 2022년 여름철 평균 해수면 온도(23.2℃)는 관측(1997~2022년)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
    - 우리나라의 21세기 후반기(2081~2100년)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(2000~2019년) 대비 2.3~6.3℃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(기상청 2023)
  -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, 오존 등 대기오염 지수가 악화되고 있음
    - 우리나라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및 발령 횟수는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임(그림 I-2) 참조)

〈그림 I-1〉 우리나라 연대별 폭염 일수 추이



주: 폭염 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℃ 이상인 날의 수임  
자료: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(2023. 5), “2023년 폭염 종합대책”

〈그림 I-2〉 우리나라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및 발령 횟수



자료: 에어코리아

-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, 대기오염 증가, 빈번한 기상이변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의

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(Fantini et al. 2024)(〈그림 I-3〉 참조)

- 대기오염 및 극한 기온(폭염 또는 한파)은 심장 관련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대기오염, 폭염, 풍수해 등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, 이는 산불 등에 따른 연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음
-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키는 매개체(모기, 벼룩)의 수와 서식지를 확대하고, 수인성 질병이나 식품 매개 병원균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짐
- 온도 상승이나 자연재해의 경험은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불안,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심지어 기후 불안정적으로 인한 우울장애(생태불안; Ecoanxiety)를 유발할 수 있음

〈그림 I-3〉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

	대기오염	극한기온 및 강수	자연재해	식수·식량 공급부족	생태환경 변화
심장관련질환	↗	↗	○	~	○
호흡기질환	↗	↗	○	○	○
매개 감염병	○	○	~	~	↗
심각한 부상	○	○	↗	○	○
정신질환	○	↗	↗	~	○
영양실조	○	○	○	↗	○
위장/수인성 관련질환	○	○	↗	↗	○
	↗ 높음	~ 다소 높음	○ 제한적·낮음		

자료: Fantini et al.(2024)

○ 건강권(Right to Health)은 생존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,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

- 건강권은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의 최고 수준에 대한 권리로, 모든 인간에게 건강에 대한 무차별 (Non-discrimination)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(WHO 2023. 12. 1)
-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, 계층별 건강 격차(건강 불평등)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

-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
-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
  - 국내·외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계층별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 봄
  -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험산업의 대응책을 제안함